

buddhanews.com

# 되고 안되는 것을 다 근본에다 놓고 걸림 없이 사세요

## 25면에서 계속

얽결량 바쁘지 않은 대로 하시고 그러세요.

**질문자(1남):** 예. 오늘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특히 형제 여러분이 한마음 공부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큰스님, 감사합니다.

**큰스님:**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세요. 우리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데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한자리를 하면서 듣고, 느끼고 알고, 바꾸고 이룰 수 있는 거니까요.

**질문자(2남):** 죄송합니다. 질문 한번 하겠습니까. 천수경을 읽다 보면 이런 귀신이 나옵니다. "한 찰나에 부처님의 마음이요, 한 찰나를 몰라서 끊임없는 억굴에 떠달리네" 저는 이 뜻을 좀더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.

**큰스님:** 하하하... 여태 한 말 헛했군요. 그런데 이 마음이란 게 없어서 한 찰나에... 아까도 얘기했죠. 주인공에다가 말기는 도리! 요렇게 간단하게 그냥 얘기합시다. 주인공에다 말걸 놓을 땐, 마음입니다. 그런데 아주 애고가 딱 딱했던 말입니다.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말갈게 청수처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. 이제. 그런데 그것이 딱 딱치자마자 '아하! 이것은 너밖에 해결할 수 없어' 하고선 거기다 딱 말걸을 땐 맑은 물로 화한다는 얘깁니다. 그게 보이지 않는 데서 벌써 화해서 돌아가서 바깥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'구정물을 맑은 물로 써라. 애고를 싱그럽고 즐겁게 써라' 이렇게 자주 바꿔서 써라' 이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한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. 부처님이 얼마나 말씀 잘해 놓으셨어요?

**질문자(3남):** 이런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는 것도 주인공의 나뭇가지도 또 생각하는 것도 주인공의 나뭇가지도 항상 관(觀)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저 자신에게 '요것도 주인공의 나뭇가지' 하는 그 방법 한 가지 하고요, 그냥 일할 때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를 곁에서 하고 있는데요, 스님이 보시기에 제 근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 방법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.

**큰스님:** 하하하... 이거 보세요.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있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, 진짜로 알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두 가지가 있죠. 그런데 생각이 나면 '그렇구나!' 그리고 뜻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시고요, 24시간 동안 그냥 생각이 안 나도, 시공을 초월해서 볼 때는 바로 내가 생각했을 때와 저녁에 가서 생각났을 때와 이게 맞먹는다는 얘기도, 주름을 잡는단 얘기도, 얼른 쉽게 말해서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냐? 저녁이나 아침이냐?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왜, 축지법을 할 때에 여기서 저기까지 한 번 뛰었다

이럴 때는, 거기 다딘 자리와 여기서 발 떼어 놓은 자리가 틀이 아니라 애깁니다. 그와 똑같은 얘기에요. 이해가 됩니까? 마음이라는 건 시공을 초월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, 이 마음이라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도 저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삼천 년 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삼천 년 후로도 갈 수 있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능히 익어서 생각이 날 때도 있고, 익지 않아서 생각날 때도 있고, 아주 익어서 생각 안 날 때도 있고, 아주 익지 못해서 생각 안 날 때도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익어 들어가는 건 자기 자신이 너무도 잘 알아야요.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 '이것도 거기서 하

을 해명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든 거지, 깨친 분들은 만 명이 깨쳐도 딱 하나입니다. (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) 한자리, 하나! 그 하나도 공해서 없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천상천하(天上天下) 유아독존(唯我獨尊)이라고 했던 겁니다. 공부들 하시는데 그런 것도 끄달리면 안 되니까 얘기를 했던 겁니다. 말씀하세요.

**질문자(4남):** 전 여쭙 볼 게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(대중 웃음)

**큰스님:** 하하하... 아, 그러면 참, 좋군요! (고개를 두 번 끄덕이시며) 지금 물을 게 없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.

**질문자(5남):** 제가 옛날에 관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심이 좀 약해 가지고 자주 물리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세우는 걸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음을 잡는 것 같으면서도 좀 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스님의 <영원한 나를 찾아서>라는 책을 보니까 '중심 아닌 중심을 관하고, 뿌리 아닌 뿌리를 관하라'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, 어디 중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 중심을 관하고 있는데, 그렇게 하니 원래 잡을 것도 없고 원래 붙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, 한번 여쭙 보고 싶습니다.

**큰스님:** 장가 드셨죠?

**질문자(5남):** 안 갔습니다.

**큰스님:** 하하하... 그러면 형제들은 있고요? 부모도 계시고?

**질문자(5남):** 예!

**큰스님:** 그런데 아우들도 있죠?

**질문자(5남):** 예!

**큰스님:** 그러면 '형님!' 하고 부르면 내가 형님 노릇을 해야 되나,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니까?

**질문자(5남):** 그냥 하지요.

**큰스님:** 그냥 하지요?

**질문자(5남):** 예!

**큰스님:** 그냥 형님 노릇 하고, 아우 노릇 하고 또는 자식 노릇 하고, 친구 노릇 하고... 이렇게 그냥 하세요?

**질문자(5남):** 예!

**큰스님:** 그냥 해도 여여하게 그냥 되죠?

**질문자(5남):** 예, 예.

**큰스님:** 그대로예요.

**질문자(5남):** 아, 예!

**큰스님:** 그대로 하세요, 그대로 그렇게. 그거를 내가 끊어뜨렸다 또는 생각을 이렇게 했더니 이리로 기울어지더라, 또 이렇게 하니깐 안되더라, 이런 것도 다 하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. 안되고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, 걸림이 없이 가세요.

**질문자(5남):** 아, 예! 그냥 하라는 말씀이시죠.

**큰스님:** 그냥 하세요.

**질문자(5남):** 감사합니다.

**큰스님:** 예.

**사회자:**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.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로 좀 미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

**큰스님:** (시계를 보시면서) 질문이 있으시면요, 서너 분 더 하지요, 뭐...

**사회자:** 그럼 딱 세 분만 더 질문을 해 주십시오. (대중 웃음)

**큰스님:** 하하하...

**질문자(6남):**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. 제 자식이 조그마한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

해만 끼치는 사람이 계속 있었는데, 지금은 이상하게도 나를 시험하는지 모르지만, 저번 달과 이달, 두 달 동안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좋은 징조가 많이 나타나 가지고 오히려 내가 두렵습니다"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.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또 무슨 얘기도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래서 "그거는 좋은 일이다. 네 그릇이 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소화를 시킬 거고, 네 그릇이 작으면 넘칠 것이다. 그런 상황에서는 물 흐르듯이 내가 처리를 해라. 물방울의 마지막 목표는 바다로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" 하는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, 대답해 놓고도 저도 오늘까지도 금금했습니다.

**큰스님:** 네! 잘하셨습니다. 아주 잘하셨습니다. (대중 박수)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. 잘되게끔 이끌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꾸자꾸 그 주동자가 바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잘될 겁니다.

**질문자(7남):** 저는 우선 말을 좀 더듬는 게 문제고요, 뭔지는 모르지만 머리에 늘 소리가 나고, 눈이 막 어리러지고 영... 그러면 모든 일에 집중이 안되고...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.

**큰스님:** 댜 기도라든가 이런 것 하러 다니셨습니까?

**질문자(7남):** 안 다녀요.

**큰스님:** 그러면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산기 도나 그런 것 안 다니셨습니까?

**질문자(7남):** 예. 부모님들은 교회에 다닙니다.

**큰스님:** (잠시 말씀을 멈추시고) 하여튼 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.

**질문자(7남):** 예, 알겠습니다.

**큰스님:** 이 도리를 공부하게 되면 병 붙을 자리는 없으니까요.

**질문자(7남):** 예, 알겠습니다.

**큰스님:** 이 도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 앞에는 업보가 붙고, 우전성이 붙고, 영계성, 세균성... 모든 게 다 붙습니다. 그러나 이 공부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런 게 붙지 않습니다.

**질문자(7남):** 예, 알겠습니다.

**큰스님:** 모두 목숨에 있는 자생증생을 작용하게 만드십시오. 그러면...

**질문자(7남):** 예, 알겠습니다.

**사회자:**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큰스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\*위 법문은 1993년 3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한마음선원 홈페이지(www.hanmaum.org, 한마음선원)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구정물을 맑은 물로 써라  
애고를 싱그럽고 즐겁게 써라  
이렇게 자주 바꿔서 써라

애고가 딱치자마자 '아하, 이것은 너밖에 해결할 수 없어!' 하고 주인공에다 딱 말쳐났을 때 맑은 물로 화합니다

는 거지' 하고 놓되, 또 생각이 안 나면 그대로 그냥... 몇 주일이라도 생각 안 난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. 허허하... 그러니까 '내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끊어뜨렸구나' 이런 격정은 마세요. 하루 종일 생각 안 났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없어요. 삼천 년 전하고 오늘하고도 틀이 아니니까요.

**질문자(3남):** 감사합니다.

**질문자(4남):** 큰스님, 감사합니다! 달마 조사님, 감사합니다! 육조 선사님, 감사합니다! 부처님, 감사합니다!

**큰스님:** 지금 요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달마니 혜가니 육조니 하는 분들은 우리 산 사람들을 위해서 질서를 다 지키면서 마음

내에 한 12시경 돼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 가지고, "아버지, 이 마음을 남한테도 줄 수 있습니까?"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저희 안사람하고 저하고는 선원에 한 2년 동안 계속 다녔지마는, 자식은 업무에 바빠 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또 일찍 나가고 하기 때문에 뜻은 가지고 있지만 못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라고 책을 사 줬더니, 자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줘도 실제 자기들이 안 다녀 보면 부모 뜻을 다 모르거든요.

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. 그래서, "어, 그러면 너도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는구나. 무슨 일이 있느냐?" 물으니, "아버지, 내가 이 수출업을 한 3년 했는데, 2년까지는



상용 상인법(가)승  
 ■재량: 50cm(상) 40cm(중)  
 ■높이: 110cm  
 ■중량: 150kg  
 ■소재: 구리  
 ■제작: 2000년

##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륜대(운장대)

### 법륜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

###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

###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운장대 기구입니다

법륜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.  
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.

[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]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륜대에 복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님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운장대입니다.

[손 길 따라 돌리지는 법륜대]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,080권의 금강경(소경책)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 경계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정등(인등)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.

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) 941-1083 / 010-4595-0017  
생산지 :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-4 달마사

법륜대 예약 대축제

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 
 연중4회(정월, 봉축, 백중, 동지)로  
 나누어 지낼 하시는  
 혜택을 드립니다.(카드가능)